‘그림의 떡’인가, ‘떡 그림’인가?

(시편 17:1~15)

1.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 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2.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3.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14.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 주는 자니이다
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그림의 떡'인가 '떡 그림'인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그림의 떡'인가 '떡 그림'인가?
김부식의 삼국사기 열전 편에 보면 신통력을 가진 화가 한 명이 소개되는데 신라 진흥왕 때의 솔거입니다. 솔거에 얽힌 일화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노송도(老松圖)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거가 황룡사 벽에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김부식의 표현에 따르면 늙은 소나무가 비늘처럼 터져 주름이 잡혔고 가지와 잎이 얼기설기 서려 마치 살아있는 진짜 소나무 같아서, 까마귀 솔개 제비 참새들이 날아들었다가 벽에 부딪혀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단계마다 후렴처럼 반복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눈을 가지고 계셔서 인간들이 대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묘사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신인동형론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은 마치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거나 화가가 그림을 그린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살면서 ‘그림의 떡’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무엇인가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게 여겨질 때의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TV에서 장동건 씨가 나옵니다. 얼굴도 잘 생기고 돈도 잘 버는 장동건 씨가 소문으로는 성격

도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장동건 씨를 바라보면 저런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미 결혼을 했으니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데 결혼적령기에 있는 한 아가씨가 장동건 씨를 보아도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장동건 씨가 청혼을 하더라도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장동건 씨가 훌륭한 신랑감인 것은 알지만 실제로 결혼하고픈 마음은 전혀 없는 상태로 장동건 씨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림의 떡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장동건 씨는 단순히 떡 그림이 됩니다.

그림의 떡과 떡 그림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림의 떡'이라는 말에는 떡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떡 그림'이라는 말은 그림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감상하는 것이고 단지 쳐다보는 것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신 것은 그림의 떡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떡 그림을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서 떡처럼 잡수시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10절에서도 "하나님이 뭍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바다 또한 떡처럼 잡수시기 좋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도 지으셨습니다.

마음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도 만족함을 느끼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도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성향을 가지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마음으로 잡수시고 마음을 채우심으로 만족하신다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고, 또한 마태복음 17장 4~5절에는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곧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담으시고 기뻐하시며 만족하셨습니다. 이것은 태초이전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만족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안에는 아들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만족하고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들어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성령님은 나오시고 예수님으로부터도 성령님은 나오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고백입니다. 라틴어 '필리오케(Filióque)'라는 말에는 '아들로부터도'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채우셔야 될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잡수시기에 좋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좋게 그림을 그리듯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잡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잡수시므로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이 100억은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제가 매번 100억을 예로 드니까 저의 집사람이 하는 말이 100억은 고사하고 10억도 5억도 3억도 만져본 적이 없으니 현실감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100억이라는 돈은 생각만 해도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푸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이 100억은 그림의 떡입니다. 먹고는 싶지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100억은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100억이 내 앞에 주어지더라도 이것은 그림이어야만 합니다. 떡을 그린 그림이어야만 합니다. 아예 먹을 생각자체를 안 해야지, 먹고는 싶은데 가질 수가 없는 상태여서는 안 됩니다.

솔거가 황룡사 벽에 그렸던 노송도는 새들에게 실제 나무로 여겨서 앉으려고 왔다가 벽에 부딪혀 땅바닥에 떨어지는 곤욕을 치렀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는 떡으로 생각하면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수 없음을 알고는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세상은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떡 그림일 뿐인데 마귀가 들어와서 속였고 사람들은 황룡사 벽화를 바라보는 새들처럼 새머리가 되었습니다. 자꾸만 이 세상의 것을 마음으로 먹어야 될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말도 이러한 마음에 의해서 생겨난 말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좀 특이한 구석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다윗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강조합니다.

2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라고 하는데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 속을 다 들여다보라고 담대한 말할 수 있겠습니까?

3절에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자세히 들여다보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큰 죄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아도 자기 속에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은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시편의 역사적 배경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대적들에 의한 위기의 상황에서 지은 시라는 것만은 알 수 있습니다.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기도하는데 13절을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합니다. 마치 자기의 전쟁을 위해 외인부대를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리전쟁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이렇게 의로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의 다윗이라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도망 보냄으로서 육신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에게 대항하는 악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강렬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그 기준을 갖는다면 본문에서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14절에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라고 기준이 제시됩니다.
앞서 10절과 12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에게 대항하는 악인들을 표현하기를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라고 악인을 묘사하는 바람에 그들이 대단한 악을 저지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는 악인의 기준은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살아 있는 동안에 자기의 분깃을 이 세상에서 받은 자들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받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가진 재물은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며 또한 남은 사업은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이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로 만족하려 하는 자들이고, 자녀의 삶을 엘리트로 만들어 자녀들의 형통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우리도 다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림의 떡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삶을 사는 이들을 악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 기준에서 볼 때에 자신은 완벽하게 의롭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라고 합니다. 악인들이 세상의 것으로 분깃을 삼을 때에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가지면 만족하리라고 믿어지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들을 그림의 떡으로 삼지 않고 단순한 떡 그림으로 보는 것을 의로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떡으로 삼은 것입니다.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하얀 도화지 위의 그림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피조의 세계 안에는 먹어서 마음을 채울 떡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릉 앞바다에서 파란 바다를 보면서 멋지다는 감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해바다를 다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감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온 악인의 모습처럼 재물과 자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행동을 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이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피조의 세계에서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의인입니다. 의인은 15절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의 떡임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조국의 독립과 독립 될 조국에서의 장관자리를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이 그림의 떡에 현실감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자신들도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언제가 먹을 수 있는 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좇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 확실해지자 그 떡들은 모두 그림의 떡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이 그림의 떡임을 알게 되자 예수님을 원망하여 팔아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장관자리를 그림의 떡으로 만드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그 돈으로라도 만족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떡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다하다 안 되면 그림의 떡으로라도 여깁니다. 하여간 세상을 떡으로 생각하든지 그림의 떡으로 생각하든지 이들이 악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못 잡아먹어 안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일어나자 제자들이 변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승천하신 주님으로 배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현장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던 것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 배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으로 배 부르자 이 세상을 떡과 그림의 떡으로 보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들의 마음에서 세상은 단순한 떡 그림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림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성령 충만이 일어나자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려 가시는 그림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전도의 역사와 핍박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려 가시는 그림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개되는 삶에서 오늘 본문의 악인들처럼 자신의 분깃을 찾으려는 사람은 없었기에 유무상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떡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볼 때에는 왕 위에 오른 자였습니다. 또한 일찍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왕위를 떡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떡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 것들을 떡이나 그림의 떡으로나마 생각하는 자들과의 싸움이 시편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유일한 떡으로 여기고자 했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 때의 만나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떡은 하늘에만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먹을 떡이 아닌 것입니다.
악인은 바로 이 세상에서 떡을 찾고 마음의 배를 불리려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자녀들까지 망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다윗이 이들을 무찔러 달라는 기도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악인으로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악인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유일한 행복의 길인 것을 아는 다윗과 같은 자들을 무찌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을 향해서 심판과 형벌과 보응이라는 그림을 그려 나가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해를 주는 원수들을 보복해 달라는 것은 전체 문맥상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가 악인과 대적자에 의해서 손해 볼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악인과 대적자들은 나를 배부르게 하시는 유일한 원천되시는 하나님을 상하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훔쳐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인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정해놓은 섭리를 펼쳐나가시는데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실지 밑그림을 받아서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솔거의 황룡사의 노송도 벽화는 너무 생생해서 새들이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돈 성공 명예 자녀들의 형통이 황룡사의 노송도 벽화 같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앉을 수 있을 것 같고 쉴 수 있을 것 같고 행복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떡이 아니며 그림의 떡조차도 될 수 없는 떡 그림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림일 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서 마음을 하나님께 보냄으로 유일하게 떡 되시는 하나님을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정하신 뜻을 따라 내 몸을 붓 삼아서 그림을 그려나가실 것입니다. 그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중에 혹시 이 세상적인 성취가 이루어지더라도 또 그것을 떡으로 알아서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림 그리기는 중단되어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든지 그것은 내 마음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떡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생명의 떡은 하늘에만 있음을 알아서 오늘도 십자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황룡사의 노송도 같이 유혹하는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과 주님으로 배부르고, 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림을 그리시는 훌륭한 붓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다윗과 같은 의로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붙잡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떡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